

데스크 시각

호남의 전략적 선택, 이번에는?



장필수 사회부장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거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안철수의 국민당이 제2 야당으로 등장하면서 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에서 12년 만에 두 개의 정당이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2004년 17대 총선 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바람으로 인물보다는 정당 투표가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의 '2野 경쟁' 구도가 되면서 야권 재편 바람과 함께 인물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선거구별 흥행 요소도 다양하다.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경선 탈락한 5개 선거구는 두 야당 후보들 간 비슷한 경력이 흥행을 자극하고 있다.

광주 북구을에선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 당시 비서관 출신의 대결이 관심을 끌고 있고 서구갑에선 동향 출신 집안 후보 간 경쟁이 눈을 사로잡는다. 영암·무안·신안에선 3선 도지사와 3선 군수 출신이 자존심 건 한 판을 벌이고 있고 신·구 변호사가 맞붙은 광주 북구갑에선 한 후보가 삼보일배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를 요구하며 지지세 확산을 꾀하고 있다. 5선의 당 대표와 삼선전자 첫 여성 임원 출신의 '고졸신화'(광주 서구을)의 한판 승부, 전·현직 의원 간 대결(광주 광산을) 등 어디를 보더라도 볼거리가 많은 올 총선이다.

정권 교체 목표는 같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호남 텃밭을 두고 벌이는 두 야당의 표심 얻기 경쟁은 경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전체 지역구 253석 가운데 호남은 28석에 불과하지만 야권의 전통적 텃밭인 데다 호남 출향인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라는 점 때문이다.

두 야당이 호남 유권자들을 향해 표를 달라며 내세우는 논리는 같다. 키워드로 얘기하면 '정권 교체'와 '전략적 선택'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장이 다를 뿐이다.

더민주는 60년간 야당을 이끌어 온 '야권 적통론'을 내걸고 야권이 분열되면 정권 창출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패권주의 정당으로 전략하면서 수권 능력을 상실한 더민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양당 체제가 아닌 야권 재편을 통해 호남 민심이 주도하는 정권교체를 역설하고 있다.

두 야당의 표심 얻기 전략이 같은 만큼 결국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가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만한 것이 자명하다.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란 곧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말한다.

이는 2002년 3월 16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등장했다. 민주당은 당원(50%)과 국민(50%)의 직접투표로 대선 후보를 뽑는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는데 군소 후보에 지나지 않던 노무현 후보가 예상을 깨고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면서 대선 후보가 됐다. 광주 시민들은 지역갈등 해소를 목표로 실현

해 온 노무현을 택함으로써 지역주의 명령을 타파하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 기준은 무엇이 될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호남 유권자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상실감 해소와 비전 제시

후보자들이 입만 열면 쏟아내는 거창한 호남정치 복원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당장 내 가족의 일자리를 쟁기고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나아가 호남선 KTX 2단계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사업을 쟁기고 실현 가능한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의 근저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경제적 낙후감, 변변한 대선 후보 하나 없고 변방으로 밀린 호남의 정치 상황 등이 깔려 있다. 따라서 소외로 인한 상실감을 어떻게 달래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총선은 결국 이런 상황을 종합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야당에 표를 던지자 않을까. 호남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궁금하다.

은펜클럽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송민석 수필가·전 여حق교장

우리 사회에서는 유독 상하관계를 따지고, 갑과 을이 존재한다. 수면 아래에 숨을 죽이며 견뎌왔던 '을'의 그늘진 모습이 이런저런 형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저마다의 처지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공감하기도 하고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

지난해에 만취된 청와대 모 행정관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를 들먹이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에 도 KTX에 탑승하기 위해 서울역 플랫폼까지 관용차를 타고 들어가 공공시설을 사유화한 국무총리 이야기와 1년 동안 교체된 운전기사만 40여 명에 달한다는 대림산업 부회장의 '슈퍼 갑질' 논란이 아직도 뜨겁다. 잠재된 우리 사회의 특권의식을 드러낸 행동이 아닌가.

요즘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사회 병리 현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체면과 명예는 뒷전이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한번 잡은 권력은 최대한 오래 누리야 한다는 식이다. 비리에 연루된

지도자가 수감 직전까지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듯 고개를 곧추세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우리에게 염치 없는 이미 박제가 되어버린 듯하다.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한국 사회의 만성적인 고질병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게다가 청년들의 가슴을 멎게 하는 '고용세습'까지 또다시 논란이다. 현대판 음서제로 지탄받는 직원 자녀 우선채용이나 특별채용 사례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평범한 자식이 집에서 어깨가 처진 채 있으면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은 애간장이 탄다.

지금이 바로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심상치 않은 부의 편중에 따른 양극화를 바로잡고, 무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권층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개혁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내려놓겠다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해가 갈수록 오히려 높아만 가 대국민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혁의 대상은 결코 자신을 스스로를 개혁할 수 없다. 이번 4.13 총선에서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 아닌가.

출마자들이 총성을 다하고 눈치를 살피는 것은 지역 유권자가 아니다. 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으려고 지역주민을 받드는 척할 뿐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말을 제대로 귀담아듣겠는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실히 보여주자.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 국민 수준이라 하지 않던가. 총선을 1주일 앞둔 요즘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의 정치풍토를 바꾸는 힘은 유권자의 한 표현 표가 쌓여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고흥의 싸목싸목 길'을 걷다 보면...



박병중 고흥군수

하는 산으로 훌쩍 떠나보고 싶은 봄이다.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고흥반도의 봄은 온통 연둛빛이다. 곳곳에 벚꽃과 철쭉, 진달래꽃들이 만발하고 그 뒤로 눈부신 연둛빛 산들이 질어간다.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떠나기 좋은 계절,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힐링하기 좋은 고흥의 '싸목싸목 길'을 소개한다.

'싸목싸목'이라는 말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걷거나 나아가다'는 의미를 지닌 전라도의 방언이다. 산은 빨리 오르는 것보다 천천히 풍경도 찍고 야생화도 찾아가며 대화를 나누면서 오르는 것이 진정한 묘미다. 숲길의 명칭을 '싸목싸목'이라고 지은 것도 같은 이유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걷는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있고, 또 앞으로 가야할 길이 있다. 이처럼, 고흥의 싸목싸목 길은 사계절 누구나 즐기며 힐링하는 품격 있는 길이고 계절별로 다양한 코스를 만날 볼 수 있는 '길손의 길'이다.

봄철에는 철쭉이 아름다운 천등산을 오르는 먼나무길 30리(11km)를 조성했고, 여름에는 운대 담방 분청사기 도요지 등 문화 화를 만나는 운암산과 봉두산 녹음길(12

km)과 가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팔영산 편백림과 단풍을 즐기는 단풍나무길(4km)을 조성해 놓았다. 계절에 상관없이 오를 수 있는 편백림과 산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봉래산 사계절 향내길(3km)도 있다.

사계절 숲길을 걷다 보면, 청정해역 고흥의 바닷내음이 내 코끝에 전해져 오고, 그 풍경에 반해 절로 걸음이 느려지게 된다. 싸목싸목 길을 걸으며 미워하고 사랑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지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름이 맑아져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러 지자체마다 걷는 길을 조성하고 있지만, 싸목싸목 길이란 특별한 이유는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데 있다.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이정표와 노면 정비만 했을 뿐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았다. 이는,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고흥의 아름다운 풍광을 그대로 보여주게 위함이다.

앞으로 고흥에 오면 어디를 가든지 숲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해안경관으로小有도 불리는 거금도에는 마라톤 풀코스 거리인 42.195km의 둘레 길을 만날 수 있고, 우주발사전망대를 비롯해 다랭이 논, 유채꽃과 몽돌 해변, 사

자바위, 용바위 등 다도해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우미산 천년 오솔길'은 봄의 아름다움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다. 여기에 기가 울창한 숲이라는 의미를 가진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을 비롯해, 올해 국립수목도병원 100주년을 맞은 소록도엔 '나눔 숲'을 학교에는 '명상 숲'이 조성된다. 또한, 군민의 삶의 터전인 마을에도 각자 특색을 가진 한평정원을 하나씩 하나씩 가꾸어 나가고, 주민 스스로 나무를 심고 가꾸자는 의미로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산과 그 속에 숲은 자연을 그대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산에 울창한 나무가 터널을 만들고 숲길을 따라 오르면 이름 모를 야생화를 볼 수 있다. 고흥에 오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만든 아름다운 작품을 만끽할 수 있다. 아이들은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과 함께 뛰놀고 어른들은 숲길을 걸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고흥의 숲길, 이 따뜻한 봄날에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 함께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싸목싸목' 숲길 여행을 떠나보자.

社說

선거 공보물 꼼꼼히 살피고 냉철한 판단을

선택 4·13 D-7

오늘로 20대 총선이 딱 7일 남았다. 선거전이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이 지역에서의 판세는 어느 정도 드러나기 했지만, '호남 적자'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은 여전히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일단 초반 승기를 잡은 국민의당은 호남에서의 지지세를 수도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의회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 주말 호남 총력전에 이어 이번 주는 호남 출신 지도부가 수도권 출장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다.

초반부터 안방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더민주는 배수진을 쳤다. 입사터 호남을 포기할 수 없는 더민주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대상으로 '정권 교체 역량론'을 내세우며 세 확장을 시도한다는 복안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당을 겨냥한 경제심판관을 다시 꺼내 '새누리' 대 더민주의 구도를 부

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투표일이 시나브로 다가오면서 길거리에는 선거 벽보가 나붙었다. 지난달 31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와 동시에 선거구별로 나붙은 벽보도 유심히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각 가정에는 선거 공보물도 이미 우송됐다. 공보물에는 후보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한 신상과 공약,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명부가 들어 있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제공한 후보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면 선택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후보자 방송 토론료 내용도 관련 홈페이지(www.tvdebate.co.kr)에서 언제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어김없이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후보의 면면을 파악해서 후회 없을 선택을 하려면 어느 정도 공을 들여야 한다. 유권자들은 선거 공보물 등을 꼼꼼히 살피고 냉철하게 판단해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임동 일대 '야구 마을' 광주 새로운 명소로

광주시와 북구, 임동 주민들이 야구 명문 해태와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10회 우승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북구 임동 일대를 야구마을로 조성한다는 반기운 소식이다. 북구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세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실히 보여주자.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 국민 수준이라 하지 않던가. 총선을 1주일 앞둔 요즘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의 정치풍토를 바꾸는 힘은 유권자의 한 표현 표가 쌓여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관중 친화형 구장으로 소문이 나면서 새 구장을 직접 보기 위해 전국에서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야구마을 조성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챔피언스필드와 함께 전국적인 광명공설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호남인들에게 KIA 타이거즈 야구는 단순한 경기만의 의미가 아니다. 10차례에 이르는 한국시리즈의 우승을 통해 5·18 이후 상실한 지역민들의 울분을 달래고, 미래의 꿈을 이루게 했던 호남인의 자부심이었다. 이러한 의미와 함께 방직산업의 축소로 인구가 감소하고 공·폐가의 증가로 낙후된 임동 지역이 야구마을로 탈바꿈해 광주의 대표브랜드화 한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에 조성하는 야구 마을은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세워 광주의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바둑 황제' 조훈현(62) 9단은 예전에 '3무(無) 선생'으로 불렸다. 남들이 다 갖고 다니는 휴대전화·신용카드·운전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년 전 신용카드를 손에 넣었다 최근엔 휴대전화까지 개통했다고 한다. 이전엔 '1무(無) 선생'이 된 셈이다.

조훈현의 정치 행마

'전화 쓸 일이 없다'던 그가 휴대전화를 갖게 된 이유는 정치에 발을 들였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무난히 금메달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바둑계에서 '지존' 칭호까지 얻은 조 9단은 "일련을 위해 정치를 안으로 이끈 것은 '바람'이었다. '어른으로서 침체한 바둑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여망이다. 평생 수위기로 세상을 살아 온 조 9단이지만 상당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그의 아내 정희자 씨는 "바둑밖에 모르는 이가 정치판에서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의 삶을 되짚어 보면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를 어렵잖게 알 수 있다. 평소 바둑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섰다. 아마추어들과 온라인 바둑을 두고, 한 온라인

인 바둑업체의 이사로 맡았다. 바둑 게임 '바부'에 선수로 출전하기도 했다. '격이 떨어진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바둑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철학이 그 바탕이었다. 조 9단의 결단에는 아마 스승의 영향도 작용했을 것이다. 조 9단은 '일본 바둑의 전설' 세고에 겐사쿠 선생의 집에서 9년 동안 살면서 공부했다. 세고에 선생은 조훈현, 위정위안(중국), 하시모로 우타로(일본) 등 동양 3국의 천재들을 가르쳤다. 선생의 지원은 "일본을 위해 할 호랑이 새끼(조훈현)를 굳이 키울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했으나, 신념을 지켰다. '사랑과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었다. 조 9단은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이창호를 집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조 9단이 일단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개인 통산 2000승(현재 1944승)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그가 정치판에서 어떤 행마와 포석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프로 기전에서 '살아 있는 전설'을 볼 수 없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윤영기 문화미디어 부장 penfoot@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지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회 2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자협회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